



한빛원전 방폐물 이송 지난 30년간 한빛원전 임시 저장고에 보관돼 있던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작업자 의복, 폐고체 등) 일부가 22일 최종 처분장이 있는 경주로 첫 이송된다. 21일 방사성폐기물을 실은 화물트럭이 보안 업체 차량을 앞세우고 발전소 내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安 “내년 2월 설前 창당” 야권 정계개편 소용돌이

“내년총선 새정치와 연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1일 정권 교체를 약속하며 독자적인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특히, 안 의원은 새정치연합과 내년 총선에서 연대·통합 불가 원칙을 밝힌데 반해 무소속 전 정배·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당 추진세력은 연대의 길을 열어, 내년 총선에서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 등 야권 지형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3·4면>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치와 세상을 바꾸려는 국민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채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그 빛을 갈을 길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산해야 할 사람들과는 연대하지 않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뒤, ▲부패에 단호한 정당 ▲실력 있는 인재들이 모이는 정당 ▲젊은 세대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정당 ▲생각이 달라도 대화·토론하는 정당의 ‘비전’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신당은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니라 낡은 정치청산과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범국민적 연합체가 될 것”이라며 “낡은 생각과 낡은 리더십,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는 새정치의 역사적 장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1월 창당준비회를 발족하고 설 전인 2월 초 신당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창당 로드맵을 제시한 뒤 이번 주부터 창당실무준비단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문제와 관련, “연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혁신을 거부한 세력과의 통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박주선 의원 등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그분들과의 연대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면서도 “신당의 최우선적 과제는 새로운 시대요구와 새정치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며 협력과 연대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와 관련,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개헌 저지선 확보로, 새누리당이 200석 이상 가져가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독자 신당 창당 선언에 따라 기존 신당 추진 세력들도 창당 등의 각개 약진에 나선 뒤, 내년 2월이나 통합 및 연대에 나설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의원의 독자 신당 추진 방침이 새정치연합을 극복하고 대체할 통합된 대안 신당을 만들어 정권 창출의 비전을 제시하라는 호남 민심의 기대와는 흐름이 다르다는 점에서 추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제부총리 유일호·사회부총리 이준식

행자 홍윤식·산업통상 주형환·여성 강은희·권익위원장 성영훈 내정

靑, 12·21 개각 <프로필 2면>

호남출신 단 한명도 없어
 국민통합·탕평인사 무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또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발탁했다. 신임 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성영훈 변호사가 임명됐다.

하지만, 이번 개각에서도 호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어 탕평인사를 통한 국민대통합은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유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등을 역임



유일호 내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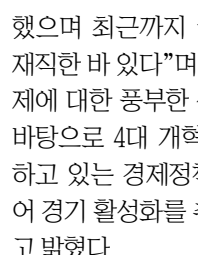
이준식 내정자



홍윤식 내정자



주형환 내정자



강은희 내정자

성영훈 내정자

했으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해 바 있다”며 “경제 정책과 실물 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부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한 이 사회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개혁을 이끌어 교육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부총리로 각종 사회 현안을 조정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홍 행정장관 내정자에 대해 “정책기획통으로 풍부한 공직경험과 국정 전반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정부 3.0,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등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주 산자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거시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정통경제 관료로 산업의 체질 개선과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를 한층 도약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고검장 오세인·광주지검장 김희재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양부남

광주고검장에 오세인(50·사법연수원 18기·강원 양양) 서울남부지검장이 승진 발탁됐다. 광주지검장에는 김희재(53·20기·여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자리를 옮겼고, 광주고검 차장검사에는 양부남(54·22기·담양) 수원지검 1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21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4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 김수남(56·16기)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취임한데 따라 검찰 지휘부를 개편한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광주·전남 출신은 고검장 1명, 검사장 3명이 승진했다. 광주 출신의 문무일(54·18기·광주일



오세인 고검장



김희재 지검장



양부남 고검차장

부원장으로, 전남 출신의 윤용길(49·21기·영등포고·고려대 법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광주 출신의 박균택(49·21기·대동고·서울대 법대) 광주고검장이 발탁됐다. 또 광주 출신의 이석환(51·21기·송일고·고려대 법대) 서울고검 검찰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김우현(48·22기·광주일고·고려대 법대) 부산지검 1차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담양 출신의 양부남(54·22기·담양공고·전남대 법대) 수원지검 1차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승진 임명됐다.

장성 출신의 조은석(50·19기·광덕고·고려대 법대) 청주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남 출신의 윤용길(49·21기·영등포고·고려대 법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광주 출신의 박균택(49·21기·대동고·서울대 법대) 광주고검장이 발탁됐다. 또 광주 출신의 이석환(51·21기·송일고·고려대 법대) 서울고검 검찰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김우현(48·22기·광주일고·고려대 법대) 부산지검 1차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담양 출신의 양부남(54·22기·담양공고·전남대 법대) 수원지검 1차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승진 임명됐다.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더불어사는 광주 행복한 시의

글로벌 경쟁력 있는 광주!

최적의 자동차 생산 도시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광주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제조업 위기 속 ?
우리의 선택은

독일에 세계적 자동차도시 슈투트가르트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광주가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

서해안 자동차벨트 거점도시

유연한 생산 시스템

우수한 융합기술 생태계 기반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패러다임을
선도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GWANGJU CITY